기쁨과 희열의 지상 천국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

이 땅 위에 구세주가 왔다면 반드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지만 36년간 일본사람들에게 식민지 생활하면서 일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였죠? 그와 같이 생활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자유천지가 되어버렸죠? 이와 같이 마귀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대로 온 세상 만민들이 만세를 부르게 되어 있죠?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

추운 겨울도 없어지고, 뜨거운 여름도 없어지고, 항상 봄 날씨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때에는 밤이 없어지고, 항상 하나님의 빛이 구세주 얼굴에서 나가는고로 태양도 어두워지고, 전깃불도 없어지고, 세상에 타는 불이 없어지는 거죠? 탄다는 자체가 멸한다는 거죠? 마귀 불이야. 불이라는 게 마귀 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불이 없어져. 태양빛도 없어지고 전깃불도 없어지고.... 화재가 일어날까? 하늘나라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야. 그때에는 마음만 먹으면 날아다니고, 별나라도 가고, 달나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무지하게 좋겠죠?

하늘나라가 되면 사람이 오래 살아가지고 늙는 법이 없어요. 늙은이가 전부 젊어져. 말만 들어도 참 통쾌한 기쁜 소식이죠?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러 왔어, 이 세상에! 그러한 하늘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마귀 세상이 끝장나지? 마귀가 전부 전멸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기네들이 전멸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죠? 이 세상 아직까지는 마귀 세상이죠? 발악을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전부 흉년이 들어요, 3년 동안. 이 지구 땅 위에 양식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굶어서 죽어. 그런 게 꼭 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에 이 사람이 감췄던 만나인 감로이슬성신을 내려서 그걸 먹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옛날 3천5백 년 전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슬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기도를 하여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다는 것이 성경 사사기에 쓰여 있죠? 그게 그림자로 먼저 그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꼭 나타난다. 그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한다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말 안 들으면 꼭 죽는다는 거지?

영생하려면 전도를 하라

여러분들, 죽어서 땅에 묻히고 싶어, 영원토록 살고 싶어? 영원토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를 많이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구먼, 통쾌하게.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복종을 하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만날 맨몸으로 혼자만 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죽지 않는 소식을 널리 알려야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열심히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이 사람이 모든 실체를 다 밝혀주고 있죠?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꽃나무도 생명이 있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꽃도 왜 죽느냐 하면 하나님이 죽기 때문에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마귀 죽이는 무기를 줬다

그런고로 사망의 신을 여러분들이 없애려면 사망의 신을 죽이는 무기인 기도문을 가르쳐줬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이 꽃 속에 있는 마귀도 죽을까, 안 죽을까? 죽으면 이 꽃이 영원토록 살까, 그냥 열흘 있으면 질까? 이 꽃도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어 있어요, 마귀만 죽여버리면.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마귀 죽이는 무기를 다 줬는데도 써먹지도 않아. 몇 번 하다가 힘들면 ‘에이, 그만 하자!’ 그래 버려. 이런 걸 보고 있을 때에 참말로 답답한 거예요.

구세주 조희성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세주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 죽어가는 만물도 살려야 되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여러분들이 널리널리 나가서 알려줄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은 승리제단이 세계만방에 알려지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대대로 조상님들의 영들이 다 영생을 같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상님들에게 효도하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돌아가신 조상님들 영들이 내 속에 있는고로 같이 하나님이 되니까 효도 중에 효도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산 사람 속에 있어. 여러분들 속에 구세주의 분신이 들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그랬죠? 그게 그런 뜻이요. 이게 승리제단의 교리죠? 그 말 할 때에 벌써 ‘아하, 네 몸이 내 몸이로구나! 하나님의 몸이 내 몸이로구나! 내 몸이 하나님 몸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정상이죠? 그것 모르는 게 밥만 담아두는 밥통이지. 사람이 그렇게 멍청해요. 사람이 마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기 때문에, 주체 영이 마귀이기 때문에 머리가 멍청해요.

하나님(생명)이 죽어서 사람이 죽어

사람이 죽는 원인을 알면 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정욕을 부린다든지, 욕망에 의해서 살게 되면 피가 푹푹 썩어요. 늙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니까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생기죠? 병균이 번식을 하니까 이런 병, 저런 병에 다 걸리게 되죠? 몸뚱어리가 썩어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썩어서 썩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조금씩 조금씩 썩어들어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도 끝도 없이 즐거운 희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증거가 사람마다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사람마다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지? 다 이날이나 날까, 저 날이나 날까? 내일이 날까, 모레나 날까? 하고서 속아서 살고 있죠? 행복을 누려본 사람은 6000년 이래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암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부자요,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도 대통령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행복이라는 게 뭐이 행복이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기쁘고 즐겁고 희열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말할 수 없이 희열이 차고 넘쳐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영원무궁토록 기쁜 것이 행복이지, 잠시 잠깐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근심·걱정했다가 하는 건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고통과 피로가 없는 곳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고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날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을 안 자요. 너무 피로하니까 사람이 잠을 자죠? 그날이 되면 사람이 피로한 걸 몰라요. 암만 힘든 일을 해도 몸이 가볍고 힘든 걸 몰라. 천당이라는 곳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야.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세계가 하늘나라야!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온 거야, 구세주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협조를 해야 될까,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될까? (생명을 걸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말은 제대로 잘하네. 생명을 걸고 협조를 해야 돼. 이 구세주가 천지개벽을 하러 왔어요.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게 무슨 마음이냐 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피가 있겠죠? 그 피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영원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인간의 조상 하나님의 피가 후손 속에 있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걸, 싫어하죠?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 고통을 모르고, 힘들 걸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는, 죽음도 모르는 그러한 조상의 하나님의 피가 후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싫어하고. 사람마다 행복을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었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희생하는 정도가 점점 많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겠어? 안 되죠?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결국은 죽어요.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인고로 마귀 안에서 행하면 피가 썩게 되어 있어요. 피가 안 썩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사람 속에 있는 양심, 양심은 희생의 영이요 희열의 영인 고로 늘 기뻐하고 늘 웃으면서 항상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그 정도도 처음에는 약 십분지 일씩 하나님한테 기울이다가, 그다음에 십분지 이 그다음에 십분지 삼, 십분지 오,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그 올라가는 대로 희생적인 생활을 하는 그 정도껏 피가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못하면 그대로 마귀로 있다가 지옥에 꼭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꼭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해서 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새출발을 해야 되겠죠?*

2000년 11월 4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5장 모세≫

(8) 하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심

(8) 하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심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놓기를 거절하는 애굽의 왕 투드모세 3세 앞에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투드모세 3세는 애

굽 안의 술객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 술객들 중에 한 명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그 술객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도 애굽의 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투드모세 3세가 강가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마침 애굽 왕이 물가로 나올 때, 모세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건네받은 아론은 그걸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 순간 물은 피로 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피로 변한 물 속에서 고기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어 또 다른 강물을 피로 바꾸자 고기가 죽어서 물위에 둥둥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술객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자, 그는 더욱 우쭐하면서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강은 썩어 모든 고기가 죽고 코를 찌르는 흉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라암셋의 모든 강과 물, 연못이 모두 피로 변하고 심지어는 솥 안의 물까지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이라곤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 주변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꾼 이적을 보이신 지 이레가 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애굽 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어 절기(제사)를 지키게 하라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은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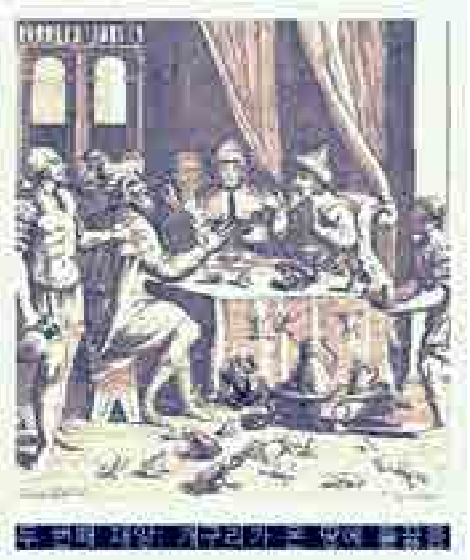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건네받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궁궐에도 애굽 왕의 침실에도 침대에도 신하의 집에도 백성의 집에도 화덕에도 떡 반죽 그릇에도, 신하의 몸에도 개구리들은 오르내렸습니다.

역시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를 내어 개구리를 온 땅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술객들의 모방으로 생긴 개구리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사람을 해쳤습니다.

다급해진 애굽의 왕 투드모세 3세는 모세와 아론을 궁으로 불러들인 후 간청했습니다.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소. 이 나라에서 개구리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오. 그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절기(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겠소!”

모세와 아론은 애걸하는 애굽 왕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 속에, 마을과 밭에 있던 독이 있는 개구리는 모두 삽시간에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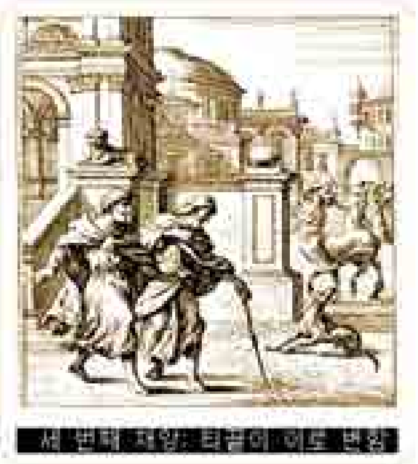
었습니다. 죽은 개구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 냄새가 애굽 나라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 땅에 가득했던 개구리들은 강으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애굽 왕은 개구리가 다 없어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다시 모세와 아론의 청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의 티끌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티끌이 이로 변할 것이니라.”

그때 모세는 아론을 시켜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몸에 기어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는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자기 술객들을 불러, “저번처럼 독이 있는 개구리로 모방하지 말고,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 않는 그런 이를 그대들의 술법으로 생기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술객들이 대답하기를, “저희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생기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 않는 이를 생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 왕은 모세의 청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이적을 모세로 하여금 행하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젤라